

하늘로부터의 편지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당신입니다



질병이나 사정은 자신의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 부분으로 바꿔서, 도약할 기회입니다.

예를 들어 질병의 경우. 몸의 어디에 원인이 있고, 왜 아픈지 밝혀내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. 그러나 그와 동시에, 뭔가 무리한 건 없는가, 살아오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것은 없는가 하며,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질병의 근본을 치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

질병이나 사정은 하늘로부터의 편지이며,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. 그리고 천리교가 그 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하늘로부터의 편지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당신입니다



질병이나 사정은 자신의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 부분으로 바꿔서, 도약할 기회입니다.

예를 들어 질병의 경우. 몸의 어디에 원인이 있고, 왜 아픈지 밝혀내는 것이 의사의 역할입니다. 그러나 그와 동시에, 뭔가 무리한 건 없는가, 살아오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것은 없는가 하며,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질병의 근본을 치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

질병이나 사정은 하늘로부터의 편지이며,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. 그리고 천리교가 그 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,
마음에 걸려서는 즐거움이 없다.

(계시록·지도말씀=1901. 7. 15)

아무리 돈이나 물질이 풍족해도, 걱정이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, 인생이 즐겁지 않다는 뜻입니다. 특히 대인관계



에 있어, 관계가 좋으면 신이 나서 생활도 즐겁지만, 그 관계가 번거로워지면 발걸음도 무겁고, 결국 후회해 버리기도 합니다. 그것을 해결할 시기도 중요하지만, 무엇보다도 우선, 마음에 걸리는 것부터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해야 합니다. 「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, 즐겁다고는 할 수 없다」라고도 깨우쳐 주셨습니다.

아무리 재물이 많더라도,
마음에 걸려서는 즐거움이 없다.

(계시록·지도말씀=1901. 7. 15)

아무리 돈이나 물질이 풍족해도, 걱정이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, 인생이 즐겁지 않다는 뜻입니다. 특히 대인관계



에 있어, 관계가 좋으면 신이 나서 생활도 즐겁지만, 그 관계가 번거로워지면 발걸음도 무겁고, 결국 후회해 버리기도 합니다. 그것을 해결할 시기도 중요하지만, 무엇보다도 우선, 마음에 걸리는 것부터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노력해야 합니다. 「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, 즐겁다고는 할 수 없다」라고도 깨우쳐 주셨습니다.

“도와주고 싶은 마음” 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싶다



이게 갖고 싶다, 저것도 갖고 싶다, 이렇게 해 줬으면, 저렇게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. 이것은 「어린아이의 마음」입니다. 반대로,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고 싶다,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. 이것은 「아버이의 마음」. 누군가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때때로 불평·불만의 마음을 낳게 합니다. 뭔가를 기대하여,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, '뭐야 저 사람' 하면서 불만을 갖기 때문입니다. 상대가 누구이든, 주위 사람들에게 제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, 조건 없이 헤아려 준다면, 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. “도와주고 싶다, 해 주고 싶다”를 한데 모아서, 모두가 아버이의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다고, 천리교는 말합니다.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“도와주고 싶은 마음” 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싶다



이게 갖고 싶다, 저것도 갖고 싶다, 이렇게 해 줬으면, 저렇게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. 이것은 「어린아이의 마음」입니다. 반대로,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 주고 싶다,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. 이것은 「아버이의 마음」. 누군가가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때때로 불평·불만의 마음을 낳게 합니다. 뭔가를 기대하여,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, '뭐야 저 사람' 하면서 불만을 갖기 때문입니다. 상대가 누구이든, 주위 사람들에게 제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, 조건 없이 헤아려 준다면, 이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. “도와주고 싶다, 해 주고 싶다”를 한데 모아서, 모두가 아버이의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다고, 천리교는 말합니다.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가벼운 짐은 어디까지라도 들고 갈 수 있다.
무거운 짐은 멀리 갈 수 없다.

(계시록·지도말씀=1897. 12. 29)



「매일 가벼운 짐을 들고 갈 수 있다」라고도 깨우쳐 주신다. 새해를 맞이하거나 뭔가를 시작할 때, ‘자, 한 번 해볼까!’ 하며 결심을 합니다.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써야지, 매일 만보를 걸

어야지 등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,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기 시작하면,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. 매일 들고 갈 수 있는 "가벼운 짐"으로 하여, 조금씩 힘을 더하며 나아갑니다. 그리고 머지않아, 원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던 것이라도, 가볍게 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,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. 이어지는 것이 천리입니다. 오래오래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존엄한 것이겠죠.

가벼운 짐은 어디까지라도 들고 갈 수 있다.
무거운 짐은 멀리 갈 수 없다.

(계시록·지도말씀=1897. 12. 29)



「매일 가벼운 짐을 들고 갈 수 있다」라고도 깨우쳐 주신다. 새해를 맞이하거나 뭔가를 시작할 때, ‘자, 한 번 해볼까!’ 하며 결심을 합니다.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써야지, 매일 만보를 걸

어야지 등 굳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,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기 시작하면,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. 매일 들고 갈 수 있는 "가벼운 짐"으로 하여, 조금씩 힘을 더하며 나아갑니다. 그리고 머지않아, 원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던 것이라도, 가볍게 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,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. 이어지는 것이 천리입니다. 오래오래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존엄한 것이겠죠.

"서로 돕기"를 아무렇지 않은 듯 오래오래



지진이 일어난다. 냉해가 계속된다. 측은한 마음에서일까요,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, 행동이 시작됩니다.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, 마침내 행동의 폭이 넓어집니다.

우리들은 혼자서 나날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.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,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, 위대한 힘이 살려 주기 때문이며,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, 평소의 모습으로, 아무렇지 않은 듯 “서로 돕기”를 오래오래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.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"서로 돕기"를 아무렇지 않은 듯 오래오래



지진이 일어난다. 냉해가 계속된다. 측은한 마음에서일까요,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, 행동이 시작됩니다. 그러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, 마침내 행동의 폭이 넓어집니다.

우리들은 혼자서 나날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.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없이,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, 위대한 힘이 살려 주기 때문이며,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.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, 평소의 모습으로, 아무렇지 않은 듯 “서로 돕기”를 오래오래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.

즐거운 삶의 천리교

나비아 꽃이야 하면서 키우지만,
나비아 꽃이야 해도
숨 하나가 나비고 꽃이다.

(계시록·지도말씀=1894년 3월 18일)

「나비아 꽃이야」라고 하는 것은, 자신의 아이를 예쁜 나비나 꽃을 보듯이, 귀엽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말



입니다. 그러나 천리교의 계시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예쁜 나비, 아름다운 꽃도 살아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, 시들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아름다움도 사라져 버립니다. 귀여운 제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, 좋은 옷을 입히는 것도 좋지만, 그 보다도 생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, 즉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, 누군가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.

나비아 꽃이야 하면서 키우지만,
나비아 꽃이야 해도
숨 하나가 나비고 꽃이다.

(계시록·지도말씀=1894년 3월 18일)

「나비아 꽃이야」라고 하는 것은, 자신의 아이를 예쁜 나비나 꽃을 보듯이, 귀엽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말



입니다. 그러나 천리교의 계시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예쁜 나비, 아름다운 꽃도 살아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만, 시들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 아름다움도 사라져 버립니다. 귀여운 제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, 좋은 옷을 입히는 것도 좋지만, 그 보다도 생명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, 즉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, 누군가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.